

석사학위논문

고교생의 심리적
분리-개체화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고 명 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창 련

2001년 8월

고교생의 심리적 분리-개체화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고 명 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출자 김 창 련

김창련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1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문 초록>

고교생의 심리적 분리-개체화에 관한 연구

김 창 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고 명 규

오늘날 고등학교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대학진학을 위한 공부에만 전력하여 이 시기에 이뤄져야 할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인 분리-개체화가 늦어지고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개체화에 관한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분리-개체화를 계열별, 성별, 출생순위별로 알아봄으로써 고등학생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한 생활지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시내 소재 실업계고교생 234명, 인문계고교생 224명, 남학생 212명, 여학생 2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0년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로는 Hoffman(1984)의 심리적 분리 척도를 바탕으로 배제현(1993)이 우리나라 청소년과 문화에 알맞게 번안,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 본 논문은 200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 t검
중, F검중 등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분리-개체화에 대한 고교생간의 계열별 아버지 분리에서는 태도적 독립
에서 실업계고등학생이 인문계고등학생보다 높다.
- 2) 어머니 분리에서나 아버지 분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능적 독립
이 높다.
- 3) 어머니 분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태도적 독립이 높다.
- 4) 출생순위별 어머니 분리에서 첫째자녀가 넷째 이하, 둘째, 셋째자녀보다
갈등적 독립이 가장 낮다.

결론적으로 남녀간의 기능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한국어머니들은 아직도 남아선호사상에 젖어 있으며, 부모는
남아와 여아를 양육함에 있어서 다르게 양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출생순위별 부모와의 분리에서 아버지가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
는 것은 가정 내에서 어머니 역할의 상대적 크기에 의한 아버지 부재현상
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 바,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는 가정에서의 부모 역
할의 조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 문제 및 가설 | 3 |
| II. 이론적 배경 | 4 |
| 1.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 4 |
| 2. 청소년기의 심리적 분리와 독립의 욕구성향 | 6 |
| 3.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 8 |
| 4.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 | 13 |
| III. 연구방법 | 19 |
| 1. 연구대상 | 19 |
| 2. 측정도구 | 19 |
| 3. 자료처리 | 21 |
| IV. 연구의 결과 및 해석 | 23 |
| V. 요약 및 결론 | 33 |
| 1. 요약 | 33 |
| 2. 결론 | 35 |
| 참고문헌 | 36 |
| 영문초록 | 1 |
| 부록(설문지) | 1 |

<표 목 차>

| | |
|---|----|
| <표 II-1> Erikson의 청년기 발달과업과 부분위기 | 10 |
| <표 III-1> 연구대상 | 19 |
| <표 III-2> 분리-개체화 척도의 내용 | 20 |
| <표 III-3> 심리적 분리 척도의 Cronbach α | 21 |
| <표 IV-1>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계열별 어머니 분리 | 23 |
| <표 IV-2>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고교생간의 계열별 아버지 분리 | 24 |
| <표 IV-3>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고교생간의 성별 어머니 분리 | 26 |
| <표 IV-4>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고교생간의 성별 아버지 분리 | 27 |
| <표 IV-5>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고교생간의 출생순위별 어머니 분리 | 28 |
| <표 IV-6>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고교생간의 출생순위별 아버지 분리 | 30 |
| <표 IV-7>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계열별, 성별 어머니 분리 | 31 |
| <표 IV-8>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계열별, 성별 아버지 분리 | 32 |

[그림 목 차]

| | |
|------------------------------------|----|
| [그림 II-1] Marcia의 자아정체감 네 범주 | 11 |
| [그림 II-2] 분리-개체화 과정 | 15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발달로 인해 많은 문제들을 지닌 시기이다. 즉,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불균형, 독립과 관련한 가족관계와의 갈등, 반항심으로 인한 사회적 부적응 등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확립이라는 발달과업을 해결해야 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부모와의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독립된 개체로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부모와의 의존관계에서 독립된 개체로서 재탄생하지 못하면 성인기에 가서도 의존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아이같은 어른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항상 적응문제를 야기하면서 살게 되어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인 분리-개체화가 청소년기인 고등학교 시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청소년시기의 거의 전부를 그저 공부만 잘하여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우리 사회의 특별한 상황이 분리-개체화를 늦어지게 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빨래, 설거지, 방청소 등도 어머니가 대신해주면서 그저 공부만 하라고 하고, 또 공부는 서열을 매기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해도 특별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어서 그들 스스로 무력감만 느끼게 된다.

심리적 분리-개체화가 늦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집에 가서 부모님께 특히 어머니께 물어보고 결정한다거나, 즉석에서 결정해

야 할 사항도 선생님께 무턱대고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김정희(1996)는 현대의 청소년들은 자립욕구가 강하나 자립심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원인으로는 현대가정의 양육방식의 문제를 들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서 아이들 각자가 자기 방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물리적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독립이 심리적 독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소한 것마저도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발달측면에서 보면 청소년기는 그들 스스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욕구가 강한 시기인데, 이 시기의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귀가 시간, 옷차림, 방청소 등 사소한 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청소년들은 가출을 시도하거나 심한 반항심을 내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갈등양상은 청소년들 스스로 하나의 완전한 개체로서 재탄생하려는 시도로 생각되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촉진시켜주는 힘이 된다(송명자, 1995).

청소년기에 해결해야 할 발달과업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자아정체감 확립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인 분리-개체화이다.

청소년기에 심리적 분리-개체화가 잘 이루어지면 자아정체감도 순조롭게 형성되어 성인기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들의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인 분리-개체화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고등학생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부모와의 분리-개체화수준은 계열별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 2) 부모와의 분리-개체화수준은 남녀별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 3) 부모와의 분리-개체화수준은 출생순위에 따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세웠다.

- 1) 실업계고교생과 인문계고교생간에는 어머니와의 분리-개체화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실업계고교생과 인문계고교생간에는 아버지와의 분리-개체화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여학생과 남학생간에는 어머니와의 분리-개체화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4) 여학생과 남학생간에는 아버지와의 분리-개체화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5) 출생순위별로 어머니와의 분리-개체화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6) 출생순위별로 아버지와의 분리-개체화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고등학생의 분리-개체화를 구명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심리적 분리와 독립의 욕구성향, 자아정체감 형성,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 및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차례대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Harvighurst(1956)는 발달과업을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어떤 시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의 성공적인 성취는 그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그 다음의 과제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며 이의 실패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하여 그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다음의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갖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박아청, 1997, 재인용).

즉,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이 있는데, 이 발달과업을 무난히 수행해야만 성인기의 새로운 도전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인간의 전 생애에서 매우 특별한 시기이다. 출생 후 첫 1, 2년을 제외하고는 청소년기에 가장 큰 신체적 변화와 성숙을 경험한다.

사춘기로 시작되는 청소년기의 특징 중 가장 우선되는 것은 급격한 신체의 발달과 생리의 변화이다. 성장급등과 호르몬 작용의 급성장으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감을 가지게 되고,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모든 적응문제는 이 급격한 신체발달과 생리의 변화로부터 온다.

홍강의(1984)는 청소년기의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는 급격한 신체적, 성적, 인지적 변화와 사회적 여건에의 적응 등은 모두 연관성을 가지고 일어나며, 이에 따른 감정과 생각, 행동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고 상당한

심리적 격동과 불안을 수반하게 된다고 한다.

그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신체변화에 적응하는 문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해방과 독립을 성취하는 문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를 들고 있다.

즉,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급격한 신체적 발달과 내분비선의 변화로 인한 호르몬의 증가로 오는 성적 충동과 공격성의 증가로 인한 정서적 격동을 어떻게 잘 처리하며 넘쳐나는 에너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소년기에 해결해야 할 발달과업의 두 번째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해방과 독립이다. 사소한 문제에도 부모에게 반항하고, 심하면 가출까지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청소년기에 해결해야 할 발달과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정체감의 확립이다. 자아정체감은 Erikson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그의 인간발달 8단계 중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 위기를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하여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일이 이 시기의 발달과업이라고 하고 있다(송명자, 1995, 재인용).

또, 정옥분(1999)은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발달과업을 여러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7가지 공통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수행한다. 둘째,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자기 성에 적합한 성역할을 습득한다. 셋째, 부모나 다른 성인으로부터 정서적 독립과 경제적 독립을 이룩한다. 넷째, 시민생활에 필요한 지적 능력을 개발한다. 다섯째, 직업선택과 그에 대한 준비를 한다. 여섯째, 자아정체감을 확립한다. 일곱째,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준비를 한다.

정옥분(1999)도 여러 공통점 중에서도 청소년기에서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은 자아정체감의 확립을 들고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가 신체적, 성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자아정체감 확립은 아주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은 청소년기가 급격한 신체발달, 성적발달, 인지발달, 그에 따른 심리 사회적 발달 등 많은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일이다. 자아정체감에 대해서는 다음 3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2. 청소년기의 심리적 분리와 독립의 욕구성향

홍강의(1984)에 의하면 아동기에 부모의 도움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아동이 청소년기가 됨으로써 부모로부터의 도움을 부정하고 독립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자아가 약하고 그들이 새롭게 느끼게 되는 성적인 충동과 공격적 충동은 너무나 강하여 심한 불안, 우울, 격동 속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아직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함을 느끼는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한다.

Blos(1979)는 1차적 개체화가 이루어진 아동이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과거의 유아적 대인관계로부터 독립하려는 구조적인 변화를 다시 시도하게 되며, 이제까지 정서적으로 의존하였던 부모로부터 성인기로 넘어가려는 하나의 준비로서 부모에 대한 의존을 부정하고 독립을 주장하며 이유없는 반항과 비행, 감정의 격동 등을 통하여 부모와의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대인관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새로운 기회로서 부모나 다른 성인과의 의존적인 관계로부터의 독립은 중요한 청소년의 발달과제이며 이러한 개체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들의 자아는 부모로부터 빌린 자아로써 남게 된다. 부모로부터 멀어지려는 이들은 부모자신의 불안과 청소년을 붙잡아두고 싶은 부모의 아집 때문에 다시 한번 걸음마기의 유아가 부모와 힘의 경쟁을 나누듯이 이들도 힘의 줄다리기를 하게 되며 그들의 감정이 격하게 된다. 다시 한번 그들의 감정은 걸음마기의 유아처럼 양가적이 되며 부모에 대한

사랑과 증오, 의존하고 싶은 욕망과 독립하고 싶은 욕망, 현실과 이상의 갈등이 겹치게 된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이러한 격동의 시기를 거침으로써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부모와 별개의 '내가 원하는 나' 즉, 완전한 하나의 객체로서의 나를 발견했을 때 제 2의 개체화가 완성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며, 이 과정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홍강의, 1984).

김은영(1992)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남녀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사회적 적응성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남자 대학생은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차원에서 사회적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부모로부터의 태도적 독립차원에서는 사회적 적응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여자 대학생은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차원에서 사회적 적응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부모로부터의 태도적 독립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독립적이며 상급생이 신입생보다, 부모님과 함께 살며 통학하는 학생보다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며 통학하는 학생이 더 독립성의 성취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노은미(1997)는 대학생의 심리적 분리가 방어기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학생의 갈등적 독립은 미성숙·신경증적 수준의 방어기체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대학생의 정서적 독립은 미성숙·신경증적 수준의 방어기체 뿐만 아니라 성숙수준의 방어기체에도 부적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출생순위에 따른 심리적 분리의 차이검증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전체 수준에 이르기까지 '가운데' 학생들이 갈등적 독립을 가장 잘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가장 잘 이룬 학생은 '가운데' '첫째' 그리고 '막내'순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긴밀한 관계속에서 자라나는데 이때 장남이나 장녀는 첫 번째 자녀로서 특별한 기대가 지워지게 되고 '오냐 오냐'하며 길러지는 막내들은 귀여움을 독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정서적 친밀

감이나 지지, 기대로부터 자유로웠던 ‘가운데’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정서적 독립을 더 잘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윤승경(1989)은 청년기 자녀의 애착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보다 따로 떨어져 혼자 사는 경우에, 그리고 부모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독립성의 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 자녀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고 느낄수록 독립성이 발달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잘 안될수록, 어머니가 자신을 믿고 있으며 자신도 어머니를 훌륭한 부모라 생각할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하고 믿을 사람이 없다고 느낄수록 독립성의 발달은 잘 되어있으며 또한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독립성의 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부모와의 물리적 독립이 되고, 부모로부터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수록 분리-개체화가 더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3.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정체감 확립이다. 자아정체감이란 용어는 Erikson이 처음 사용하였는데, Erikson은 특히 청소년기에 현저히 제기되는 일련의 질문들, 즉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인물인가, 아닌가? 등의 자문을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Erikson은 “자아정체감이란 개인의 자아가 그의 인격체계(즉, id, ego, superego)를 통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질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의 자아통합화의 방식이 자기가 타인

에게 주는 개인적 의미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견지해나가는데 유효하다는 것을 또한 아는 것”이라고 정의했다(서봉연, 1956, 재인용).

정옥분(1999)은 확고한 정체감을 지닌 사람은 개별성, 총체성, 계속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개별성은 가치나 동기 또는 관심을 얼마쯤 타인과 공유했다 하더라도 자신은 타인과 다르다는 인식, 즉 자신은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인식이고, 총체성은 자신의 욕구, 태도, 동기, 행동양식 등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계속성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자신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 즉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이다.

Erikson(1988a)은 청소년기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극복해야 할 7개의 주요과업을 다음 <표 II-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송명자, 1994, 재인용).

후술하는 <표 II-1>에서 보면 대각선은 Erikson의 인간 발달 8단계 이론이고, 수직선은 청소년기의 정체감 위기에 앞의 4단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앞의 4단계 중 어느 한 단계라도 불행한 경험을 하게 되면 무력감, 역할 금지, 고립감, 회의감 등이 너무 커서 정체감 발달에 장애를 초래한다. 반면, 앞의 4단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상호인지, 의지·결의, 무엇이 되고자 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 과업 동일시를 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기초가 된다. 수평선은 청소년기 위기 그 자체의 여러 가지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즉, 청소년기 이전에 극복해야 할 위기가 청소년기에 재출현하고, 성인기의 다른 세가지 위기가 여기에 더해진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극복해야 할 위기는 이 일곱가지 부분위기(part conflict)를 해결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기에 확고한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일곱가지 부분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에릭슨의 이론에 따르면 이 일곱가지 부분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자아정체감을 확립한 청소년은 이후의 성인기에서 성공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행복한 삶을 영위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표 II-1> Erikson의 청년기 발달과업과 부분위기

| | | | | | | | | |
|-----|-------------------------|------------------|------------------|------------------------|------------------|-------------------|------------------|-------------------|
| VII | | | | | | | 통합성 대 절망감 | |
| VII | | | | | | 생산성 대 침체성 | | |
| VI | | | | | 친밀감 대 고립감 | | | |
| V | 시간전행 대 시간후회 | 자기확신 대 자괴감 | 의합감 대 의합고립 | 도제·전습 대 활동유능 | 경제감 대 경제고립 | 상의양극 대 양상본면 | 지도력 대 권위본면 | 진정실현 대 가짜본면 |
| IV | | | 근면성 대 열등감 | 과업동일 시 대 무력감 | | | | |
| III | | 주도성 대 적책감 | | 역할기대 대 역할금지 | | | | |
| II | 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감 | | | 의지·결 의 대 회의감 | | | | |
| I | 신뢰감 대 불신감 | | | 상호인지 대 자폐적 고립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출처 : Erikson, 1968, 재인용

또한, Marcia(1966, 1991)는 Erikson의 정체감 형성 이론에서 두가지 차원, 즉 위기와 수행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고, 이 두가지 차원의 조합을 통해 [그림 II-1]과 같이 자아정체감을 네 범주로 나누었다.

여기에서 위기란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재평가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수행은 계획, 가치, 신념 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정옥분, 1999).

| | | | |
|----|-----|--------------------------|------------------------|
| | | 위기 | |
| | | 예 | 아니오 |
| 수행 | 예 | 성취 (위기해결) | 유실 (위기경험 없음) |
| | 아니오 | 유예 (위기 현재 진행중) | 혼미 (위기경험 없음) |

[그림 II-1] Marcia의 자아정체감 네 범주

출처 : Santrock, 1981. 재인용

[그림 II-1]에서 정체감 성취란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고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이고, 정체감 유예란 정체감 위기상태에 있으면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 정체감 유실이란 정체감 위기를 경험해보지 않고 부모의 가치나 기대를 그대로 수용하여 그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의사결정해 버리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정체감 혼미란 자기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위기도 경험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이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어제와 오늘의 자기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배제현(1993)은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와 자아정체감, 학교 및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간의 관계에서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 중 기능적 독립과 자아정체감 지위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함으로써 분리-개체화와 자아정체감 형성은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고 있다.

또, 분리-개체화의 정도와 자아정체감 지위의 직업관 영역과 종교 도덕관 영역에서는 분리-개체화의 정도가 높은 집단이 성취지위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성역할 영역과 인간관계 영역에서는 분리-개체화의 정도가 높은 집단이 성취지위와 조기완료지위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전희정(1996)은 청소년의 분리-개체화과정과 자아정체감 형성과의 관계 연구에서 분리-개체화 과정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와 결속과 건강한 독립의 특성이 더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종권(1998)은 청소년 후기의 가정과 학교생활 적응이 개체화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정생활의 적응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의 적응과 개체화의 진전이 잘 되고 자아정체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또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이 개체화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볼 때 남자대학생은 소속감과 친밀성이 높을 때 개체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와 반면에 여자대학생은 소속감과 협동성이 개체화 과정을 순조롭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의 적응이 개체화에 주는 영향을 성별로 볼 때, 남자대학생은 안정도와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개체화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고 적응도와 참여도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에 여자대학생은 안정도가 높은 학생이 개체화가 순조롭지 못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분리-개체화가 잘 될수록 자아정체감 형성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이룬 남녀 대학생 모두가 사회적 적응성이 높으며, 가정생활적응이 높을수록 개체화의 진전이 잘된다고 보고하고 있어, 분리-개체화는 인간이 출생해서 하나의 독립된 완전한 성인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상에서 자아정체감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자아정체감 확립과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인 분리-개체화는 필연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분리-개체화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4.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

여기에서는 먼저 분리-개체화에 대한 개념을 검토한 후 분리-개체화 과정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분리-개체화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논거하고 있다. Mahler(1979)는 아동이 출생하여 첫 3년간 어머니와 공생관계를 떠나 하나의 분리된 개체로서 인식하는 것을 분리-개체화(separation-individuation)라고 하였다.

Mahler(1979)의 'separation-individuation'을 번역함에 있어서 배제현(1993)은 분리-개체화라고 하고, 홍강의는 분리-개별화라고 하고, 노은미(1997)는 심리적 분리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배제현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리-개체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인간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와 육체적으로는 분리되었으나 심리 정서적으로는 하나인 것으로 인식하는 정상적 자폐시기가 있고, 그 후 인지발달과 심리발달에 따라 대상영속성(object permanence)이 생기게 되면서 유아는 자신이 환경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머니와 분리된 개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Piaget에 의하면 대상영속성 개념은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두 가지의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획득된다고 한다(배제현, 1993, 재인용).

신생아의 대상영속성 개념의 획득과 자아 인식이 뚜렷해지면서 아동은 독립심이 발달하게 되는데, 아동 자신이 주변 환경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또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식과정을 Mahler(1979)는 분리-개체화(separation-individuation)라고 하였다.

박아청(1997)은 어머니와 아동은 서로가 각기 독립된 존재로서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상호관계를 갖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어머니와 자녀의 분리와 아동의 자율성이 이루어지는 발달과정을 분리-개체화 과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분리-개체화란 인간이 탄생해서 만 3세가 되면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분리되고, 자신이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존재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율성이 획득되는 것을 말한다.

Mahler(1975)는 분리-개체화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는 분화기, 실행기, 재접근기, 개체성의 확립과 정서적 대상영속성의 획득 단계의 네 단계로 분리-개체화 과정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분리-개체화 단계를 기본으로 하여 홍강의(1984)는 인간이 출생해서 제2의 개체화가 완성되는 시기인 청소년시기까지의 분리-개체화 과정을 과정을 다음 [그림Ⅱ-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Ⅱ-2]에서 보면, 정상적 자폐시기가 있고, 그 다음으로 공생기를 거쳐 제 1 분리-개체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제 1 분리 개체화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아분화기로서 출생시 자폐단계에 있었던 신생아는 아동의 신체적 의존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생후 4~7개월까지이다. 이 시기는 어머니와 밀착해 있으면서도 기어다니기 시작하여 아동능력이 생김으로 인해 외부세계에 대해 능동적인 호기심을 발휘하고 사물을 탐색하게 되는 단계이다.

둘째는 분리-연습기로서 생후 8개월에서 18개월까지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어머니에게 항상 근접해 있지는 않으나 간간이 어머니에게 접근하면서 어머니의 존재를 확인하며, 아동은 서서 걸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물에 대한 탐색도 모색하게 된다.

셋째는 재결합기인데 생후 19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이다. 이 시기는 어머니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어머니와 결합하기를 바라는 양가감정이 나타나는 시기로 아동은 자신의 신체적 독립을 깊이 인식하면서 자신의 능력도 증진시키지만, 그의 새로운 신체적 능력에 대한 인식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도 커서 어머니와 친근해지려고 능동적으로 어머니에게도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시기이다.

넷째는 자아병합기이다. 이 단계는 25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인데 재결합기에 나타나는 양가감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머니에 대한 안정된 신뢰감이 생기며 대상영속성에 대한 인지기능의 획득에 의해 인간의 영속성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는 시기이다. 그와 동시에 그때까지는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 그대로 분열되어 있던 대상표상이나 자기표상이 이제는 '좋다'와 '나쁘다'로 분열할 필요가 없는 현실적인 전체 표상으로 통합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안정된 자기개념과 정서적 대상영속성을 가진 자아정체감, 즉 핵심적 정체감(core identity)이 획득되는 시기이다.

개체성(individuality)이란 타자와 구별된 자기가 독립된 자율적 존재로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확립과정은 신체감각을 계기로 해서 외계와는 별개의 특별한 존재로서의 자기의 신체를 확인하여, 신체상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분리-개체화 과정을 경유해서 정서적 대상영속성과 자기의 개체성이 획득되고 핵심적 정체감이 형성되었을 때 인간은 심리적 탄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배제현(1993)은 유아기의 분리-개체화란 유아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분화된 상태로 부모와 공생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내적인 심리적 구조가 형성되고 어머니와 자기 사이에 경계선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자율성을 획득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분리-개체화는 유아기의 4단계로 이루어지는 제1분리-개체화시기가 있고,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제2의 분리-개체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Blos(1967)는 이러한 분리-개체화 이론을 청소년기에 도입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심리적, 행동적 현상들이 두 세 살 먹은 걸음마기의 유아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분화된 상태로 부모와 공생적 관계를 가지다가 내적인 심리적 구조가 형성되고 어머니와 자기 사이에 경계선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을 제1 분리-개체화시기로 본 Mahler(1975)의 이론을 청소년시기 발달에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한편, 청소년기의 심리적 분리과정을 연구한 Hoffman(1984)은 Mahler(1975)의 이론을 기초로 청소년기의 심리적 분리과정에 대한 4가지의 독립된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첫째,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이란 청소년들이 그들 부모의 도움없이 실제적이고도 개인적인 사태를 다루고 지도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기능적인 독립은 행동적인 독립을 나타내며, 교우

관계와 여가 및 일처리를 포함한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 태도적 독립(attitudinal independence)은 청소년들이 현재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관하여 그들의 부모에게서 자신의 태도, 가치 및 신념들을 분화시키는 능력을 가리키며, 셋째,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은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승인, 친밀, 동질성 및 정서적 지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넷째,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은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과도한 죄의식, 불안, 불신, 책임성, 억제, 원한 및 분노로부터의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기 심리적 분리과정을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Hoffman(1984)의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내 고등학교를 계열별, 성별로 임의표집하여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상은 <표 Ⅲ-1>과 같다.

본 연구는 2000년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전량 회수하였다.

<표 Ⅲ-1> 연구대상

| 계열별 | 남 | 여 | 계 |
|-----|------|------|------|
| 인문계 | 110명 | 114명 | 224명 |
| 실업계 | 102명 | 132명 | 234명 |
| 계 | 212명 | 246명 | 458명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분리-개체화의 수준을 구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는 Hoffman(1984)의 심리적 분리 척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문화에 알맞게 번안, 제작하여 배제현(1993)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분리-개체화 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 Ⅲ-2>와 같다.

<표 III-2> 분리-개체화 척도의 내용

| 하위영역 | 개 요 | 문항분류 |
|-------|--|---|
| 기능적독립 | 청소년들이 자기 부모의 도움이나 승인, 정서적 지지가 없이도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정도 | 4, 9, 11, 17, 21, 22, 24, 25, 28, 29, 32, 34, 37 (13문항) |
| 정서적독립 | 청소년들이 자기 부모와 관련된 죄책감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도 | 1, 2, 3, 5, 6, 7, 26, 27, 30, 35, 38 (11문항) |
| 갈등적독립 | 자기 부모의 과잉보호에 따른 분노로부터 자유로운 정도 | 10*, 12, 14, 15, 16, 19, 20, 23, 36 (9문항) |
| 태도적독립 | 청소년들이 현재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관해 부모의 관념으로부터 그들의 신념, 가치, 태도를 분화시키는 능력 | 8, 13, 18, 31, 33 (5문항) |

출처 : 배제현(1993).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와 자아정체감, 학교 및 가정생활에 대한 적용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본 연구는 배제현이 사용한 심리적 분리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위 <표 III-2>에서 *는 어머니와의 분리에서는 갈등적 독립으로, 아버지와 의 분리에서는 정서적 독립으로 처리하였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 거의 그렇지 않다-4점, 가끔 그렇다-3점, 자주 그렇다-2점, 항상그렇다-1점)까지 나누어지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각각 38문항으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더 높은 분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문항을 역으로 계산한다. 각 하위요인 별 총점은 부모에 대해 각각 위 측정도구에 대한 기능적 독립이 65점, 정서적 독립이 55점, 갈등적 독립이 45점, 태도적 독립이 25점이다.

척도별 Cronbach α 는 아래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심리적 분리 척도의 Cronbach α

| 심리적 분리 척도 | | 항목수 | Cronbach α |
|-----------|--------|-----|-------------------|
| 아버지 | 기능적 독립 | 13 | .89 |
| | 정서적 독립 | 12 | .61 |
| | 갈등적 독립 | 8 | .72 |
| | 태도적 독립 | 5 | .74 |
| | 전체 | 38 | .72 |
| 어머니 | 기능적 독립 | 13 | .84 |
| | 정서적 독립 | 11 | .52 |
| | 갈등적 독립 | 9 | .71 |
| | 태도적 독립 | 5 | .69 |
| | 전체 | 38 | .72 |

심리적 분리를 측정하는 심리적 분리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어머니의 경우 각 하위영역은 .52~.84에 걸쳐 있으며 어머니 분리 전체의 알파계수는 .72이다. 아버지의 경우 각 하위영역의 알파계수가 .61~.89의 범위에 있으며, 아버지 분리 전체의 알파계수는 .72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3. 자료처리

배부된 질문지 수는 인문계고교생 240부, 실업계고교생 240부 총 480부였으며, 배부된 설문지는 모두 회수되었는데, 이 중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통계 처리하였다.

자료분석에 이용된 질문지는 458부였고, 이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계열간 차이비교와 성별 차이비교는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을 실시하

였다.

- 2) 출생순위별 차이비교는 평균과 표준편차, F검증을 실시하였다.
- 3) 유의수준은 $p < .001$ $p < .01$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IV. 연구의 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고등학생의 분리-개체화 수준을 계열별, 성별, 출생순위별로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분리-개체화에 대한 연구결과 및 해석을 다룬다.

1.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계열별 어머니 분리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어머니 분리에 대하여 고교생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계열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계열별 어머니 분리

| 계열별 어머니 분리 | 인문계(N=224) | | 실업계(N=234) | | 합계(N=458) | | t |
|---------------|------------|-------|------------|-------|-----------|-------|-------|
| | M | SD | M | SD | M | SD | |
| 기능적 독립 | 45.93 | 8.50 | 45.96 | 8.07 | 45.95 | 8.27 | -.03 |
| 정서적 독립 | 36.75 | 3.99 | 36.31 | 4.28 | 36.52 | 4.14 | 1.12 |
| 갈등적 독립 | 29.00 | 5.32 | 29.39 | 5.65 | 29.20 | 5.49 | -.76 |
| 태도적 독립 | 16.27 | 3.98 | 16.88 | 3.94 | 16.58 | 3.96 | -1.66 |
| 요인전체(총점) | 127.96 | 13.31 | 128.55 | 13.21 | 128.26 | 15.48 | -.48 |

<표 IV-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와의 분리는 인문계고교생과 실업계고교생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2.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계열별 아버지 분리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아버지 분리에 대하여 고교생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계열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고교생간의 계열별 아버지 분리

| 계열별 아버지 분리 | 인문계(N=224) | | 실업계(N=234) | | 합계(N=458) | | t |
|---------------|------------|-------|------------|-------|-----------|-------|---------|
| | M | SD | M | SD | M | SD | |
| 기능적 독립 | 50.30 | 8.60 | 50.30 | 10.08 | 50.30 | 9.37 | .01 |
| 정서적 독립 | 41.40 | 5.33 | 41.02 | 5.55 | 41.21 | 5.44 | .76 |
| 갈등적 독립 | 26.43 | 5.57 | 25.82 | 5.58 | 26.12 | 5.57 | 1.18 |
| 태도적 독립 | 17.51 | 4.37 | 18.53 | 4.04 | 18.03 | 4.23 | -2.60** |
| 요인전체(총점) | 135.65 | 14.92 | 135.67 | 16.02 | 135.66 | 15.48 | -.01 |

** : P<.01

<표 IV-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인문계고교생과 실업계고교생간의 아버지 분리는 태도적 독립에서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실업계고교생(M=18.53)이 인문계고교생(M=17.51)보다 태도적 독립에서 더 높은 분리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1999)의 자료에 의하면 인문계고교졸업생 가운데 84.5%가 진학을 하고, 2.7%의 학생이 취업을 하며, 실업계고교졸업생 중 38.5%의 학생이 진학을, 51%의 학생이 취업을 한다고 한다. 따라서 실업계고교생이 인문계고교생보다 태도적 독립에서 아버지에 대하여 더 높은 분리를 나타내는 것은 인문계고교생이 대학진학이라는 하나의 진로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반면, 실업계고교생은 취업도 가능하고, 대학입학도 할 수 있는 비교적 자유로운 진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을 비교적 자유롭게 보

낼 수 있어서 역할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는 고교입시에서부터 실업계고교에 진학한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고, 반면에 자녀는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의 현실적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신념, 가치, 태도를 현실에 알맞도록 아버지에게서 분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배제현(1993)이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와 자아정체감, 학교 및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에 대한 분리개체화 중 태도적 독립이 높은 집단에서 자아정체감지위의 종교도덕관영역에서 유예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조기완료와 혼미는 태도적 독립이 낮은 집단에서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실업계고등학생이 인문계고등학생보다는 자아정체감 지위 중 종교도덕관 영역에서 유예에 속한 학생들이 많다고 유추할 수 있다.

3.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성별 어머니 분리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고교생간 성별 어머니 분리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IV-3>과 같다.

뒤에 제시된 <표 IV-3>과 같이 어머니 분리에 대한 고교생의 성별 비교는 기능적 독립($P<.001$), 태도적 독립($P<.01$), 요인전체에서만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요인전체에서 보면, 남학생($M=130.65$)이 여학생($M=126.20$)보다 분리-개체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하위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M=48.18$)이 여학생($M=44.12$)보다 기능적 독립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학생($M=17.14$)은 여학생($M=16.11$)보다 태도적 독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고교생간의 성별 어머니 분리

| 계열별 어머니 분리 | 남(N=212) | | 여(N=246) | | 계(N=458) | | t |
|---------------|----------|-------|----------|-------|----------|-------|---------|
| | M | SD | M | SD | M | SD | |
| 기능적 독립 | 48.18 | 6.90 | 44.12 | 8.86 | 45.95 | 8.27 | 5.65*** |
| 정서적 독립 | 36.66 | 3.94 | 36.41 | 4.32 | 36.52 | 4.14 | .63 |
| 갈등적 독립 | 28.67 | 5.10 | 29.66 | 5.78 | 29.20 | 5.49 | -1.94 |
| 태도적 독립 | 17.14 | 3.82 | 16.11 | 4.03 | 16.59 | 3.97 | 2.81** |
| 요인전체(총점) | 130.65 | 13.67 | 126.20 | 13.67 | 135.66 | 15.48 | 3.67*** |

** : p<.01 ***:p<.001

이는 윤승경(1989)이 청년기 자녀의 애착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에서 여학생(M=3.25)보다 남학생(M=3.48)이 독립에 대한 성취수준이 높았다는 보고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그리고 연구대상이 대학생이기는 하지만 노은미(1997)의 연구에서도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기능적(남 M=42.44 여 M=38.27), 정서적(남 M=28.75 여 M=27.01)으로 독립되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김은영(1992)의 연구에서도 남학생(M=319.59)이 여학생(M=308.80)에 비해 더 독립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연구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한 본 연구와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노은미(1997), 김은영(1992)의 연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맡은 표현적 역할을 기대하므로 어린 여아는 다정하고 상냥하고 협조적이고 타인의 요구에 민감하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반면 남아에게는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도구적 역할을 기대하므로 남아에게는 지배적이고 독립적이고 자기주장적이며 경쟁적으로 키우려고 노력한다(최순영·김수정 편, 1998)고 한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홀몬의 영향으로 남아는 공격성이 여아보다 높고 또 여아보다 거칠고 따라서 어머니들은 남아를 키우면서 여아에게보다 화

를 잘 내게 되며 남아는 저항하고 분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머니로부터 분리를 이뤄나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여아와 남아를 구분해서 양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심리적 양성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남아 건 여아 건 남성성, 여성성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양육태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4.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성별 아버지 분리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고교생간 성별 아버지 분리에 대한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IV-4>와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 IV-4>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고교생간의 성별 아버지 분리

| 계열별 아버지 분리 | 남(N=212) | | 여(N=246) | | 계(N=458) | | t |
|---------------|----------|-------|----------|-------|----------|-------|-------|
| | M | SD | M | SD | M | SD | |
| 기능적 독립 | 51.21 | 7.88 | 49.52 | 10.44 | 50.30 | 9.37 | 1.97* |
| 정서적 독립 | 41.15 | 5.58 | 41.25 | 5.32 | 41.21 | 5.44 | -.20 |
| 갈등적 독립 | 25.73 | 5.55 | 26.46 | 5.59 | 26.12 | 5.57 | -1.40 |
| 태도적 독립 | 18.13 | 4.28 | 18.13 | 4.28 | 18.03 | 4.23 | .46 |
| 요인전체(총점) | 136.22 | 15.03 | 135.18 | 15.86 | 135.66 | 15.48 | .71 |

* : p<.05

<표 IV-4>에서 제시된 것처럼 아버지 분리에 대한 고교생간의 성별 비교는 기능적 독립에서 남학생(M=51.21)이 여학생(M=49.52)보다 분리-개체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아버지가 남아와 여아를 양육하는 태도에 있어서 다르게 양육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학습이론가들(Bandura, 1977; Mischel,

1970)은 남아에게는 거칠고 자기 주장적이며 경쟁적이 되도록 지도하는 반면, 여아에게는 온순하고 협조적이 되도록 지도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들은 남아를 독립적이고 강한 아이로 키우고자 하고, 여아의 경우는 온순하고 협조적인 아이로 키우고자 하는 생각의 차이가 아버지 분리에서 남학생의 기능적 분리 수준이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5.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출생순위별 어머니 분리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고교생간의 출생순위별 어머니 분리에 대한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고교생간의 출생순위별 어머니 분리

| 출생순위별 | 첫째 (N=189) | | 둘째 (N=159) | | 셋째 (N=75) | | 넷째이하 (N=35) | | 전체 (N=458) | | F |
|--------------|---------------|-------|---------------|-------|--------------|-------|----------------|-------|---------------|-------|-------|
|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
| 어머니 분리 | | | | | | | | | | | |
| 기능적 독립 | 45.60 | 8.31 | 46.36 | 8.26 | 45.23 | 8.07 | 47.49 | 8.61 | 45.95 | 8.27 | .84 |
| 정서적 독립 | 36.55 | 4.42 | 36.16 | 4.11 | 36.63 | 3.78 | 31.66 | 4.96 | 36.52 | 4.14 | 1.52 |
| 갈등적 독립 | 28.56 | 5.95 | 29.48 | 5.26 | 29.09 | 4.69 | 31.66 | 4.96 | 29.20 | 5.49 | 3.41* |
| 태도적 독립 | 16.32 | 4.12 | 16.82 | 3.99 | 16.60 | 3.63 | 16.91 | 3.78 | 16.59 | 3.97 | .54 |
| 요인전체 (총점) | 127.03 | 13.88 | 128.82 | 13.22 | 127.55 | 10.99 | 133.86 | 13.21 | 128.26 | 13.25 | 2.83* |

*:p<.05

<표 IV-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출생순위별 어머니 분리는 갈등적 독립 (P<.05)과 요인전체(P<.05)에서만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요인전체에서 보면 넷째 이하(M=133.86), 둘째(M=128.82), 셋째(M=127.55), 첫째(M=127.03) 순으로 어머니 분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개체화의

하위영역별로 보면, 갈등적 독립에서 넷째 이하(M=31.66), 둘째(M=29.48), 셋째(M=29.09), 첫째(M=28.56) 순으로 어머니 분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은미(1997)가 대학생의 심리적 분리가 방어기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운데' 학생들이 갈등적 독립을 잘 이루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가운데 M=66.08 막내 M=65.67 첫째 M=64.04).

갈등적 독립에서 첫째 자녀가 갈등적 독립을 가장 덜 이루고 있는데, 이는 부모의 첫 번째 자녀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노은미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첫째 자녀가 어머니와의 분리에서 갈등적 독립 차원에서 분리수준이 제일 낮은 것은 출생순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른 데서 기인한다. 왜냐하면 만이는 부모와의 특별하고도 독점적인 관계를 맺으며, 부모는 첫째 자녀를 양육할 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과잉보호적인 양육태도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첫째자녀가 나중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분리-개체화 수준의 하위영역에서 갈등적 독립이 낮은 원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부모들은 첫 번째 자녀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자녀를 부모로부터 독립시키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에 유념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출생순위별 아버지 분리

분리-개체화수준에 대한 고교생간의 출생순위별 아버지 분리를 알아본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고교생간의 출생순위별 아버지 분리

| 출생순위별 아버지 분리 | 첫째 (N=189) | | 둘째 (N=159) | | 셋째 (N=75) | | 넷째이하 (N=35) | | 전체 (N=458) | | F |
|-----------------|---------------|-------|---------------|-------|--------------|-------|----------------|-------|---------------|-------|------|
|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
| 기능적 독립 | 51.51 | 8.66 | 49.64 | 9.89 | 49.05 | 9.51 | 49.46 | 10.04 | 50.30 | 9.37 | 1.87 |
| 정서적 독립 | 40.76 | 5.65 | 41.70 | 5.27 | 41.11 | 5.26 | 41.57 | 5.41 | 41.21 | 5.44 | .94 |
| 갈등적 독립 | 25.59 | 6.34 | 26.96 | 5.14 | 25.44 | 4.69 | 26.63 | 4.28 | 26.12 | 5.57 | 2.24 |
| 태도적 독립 | 18.17 | 4.13 | 17.92 | 4.33 | 17.92 | 4.31 | 18.09 | 4.37 | 18.03 | 4.23 | .12 |
| 요인전체 (총점) | 136.03 | 15.61 | 136.21 | 15.80 | 133.52 | 13.76 | 135.74 | 16.96 | 135.66 | 15.48 | .58 |

<표 IV-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출생순위별 아버지 분리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노은미(1997)의 연구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출생순위별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는 오늘날 한국상황에서 아버지는 있으나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버지 부재현상과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7.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계열별, 성별 어머니 분리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아버지 분리를 계열별, 성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하나의 표로 나타내 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계열별, 성별 어머니 분리

| 출생순위별 어머니 분리 | 계열별 | | | | | 성별 | | | | |
|-----------------|----------------|-------|----------------|-------|-------|--------------|-------|--------------|-------|---------|
| | 인문계 (N=224) | | 실업계 (N=234) | | t | 남 (N=212) | | 여 (N=246) | | t |
| | M | SD | M | SD | | M | SD | M | SD | |
| 기능적 독립 | 45.93 | 8.50 | 45.96 | 8.07 | -.03 | 48.18 | 6.90 | 44.12 | 8.86 | 5.65*** |
| 정서적 독립 | 36.75 | 3.99 | 36.31 | 4.28 | 1.12 | 36.66 | 3.94 | 36.41 | 4.32 | .63 |
| 갈등적 독립 | 29.00 | 5.32 | 29.39 | 5.65 | -.76 | 28.67 | 5.10 | 29.66 | 5.78 | -1.94 |
| 태도적 독립 | 16.27 | 3.98 | 16.88 | 3.94 | -1.66 | 17.14 | 3.82 | 16.11 | 4.03 | 2.81** |
| 요인전체 (총점) | 127.96 | 13.31 | 128.55 | 13.21 | -.48 | 130.65 | 13.67 | 126.20 | 13.67 | 3.67*** |

***:p<.001 **:p<.01

<표 IV-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고교생의 어머니 분리에서는 계열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성별 비교에서는 기능적 독립(P<.001), 태도적 독립(P<.01), 요인전체(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요인전체에서 남학생(M=130.65)이 여학생(M=126.20)보다 분리-개체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리-개체화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남학생(M=48.18)이 여학생(M=44.12)보다 기능적 독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태도적 독립에서도 남학생(M=17.14)이 여학생(M=16.11)보다 높게 나타났다.

8.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계열별, 성별 아버지 분리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아버지 분리를 계열별, 성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하나의 표로 나타내 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계열별, 성별 아버지 분리

| 출생순위별 아버지 분리 | 계열별 | | | | | 성별 | | | | |
|-----------------|----------------|-------|----------------|-------|---------|--------------|-------|--------------|-------|-------|
| | 인문계 (N=224) | | 실업계 (N=234) | | t | 남 (N=212) | | 여 (N=246) | | t |
| | M | SD | M | SD | | M | SD | M | SD | |
| 기능적 독립 | 50.30 | 8.60 | 50.30 | 10.08 | .01 | 51.21 | 7.88 | 50.30 | 9.37 | 1.97* |
| 정서적 독립 | 41.40 | 5.33 | 41.02 | 5.55 | .76 | 41.15 | 5.58 | 41.21 | 5.44 | -.20 |
| 갈등적 독립 | 26.43 | 5.57 | 25.82 | 5.58 | 1.18 | 25.73 | 5.55 | 26.12 | 5.57 | -1.40 |
| 태도적 독립 | 17.51 | 4.37 | 18.53 | 4.04 | -2.60** | 18.13 | 4.28 | 18.03 | 4.23 | .46 |
| 요인전체 (총점) | 135.65 | 14.92 | 135.67 | 16.02 | -.01 | 136.22 | 15.86 | 135.66 | 15.48 | .71 |

**:<.01 *:<.05

<표 IV-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계열별 아버지 분리 비교에서 실업계 고교생이 인문계고교생보다는 태도적 독립을 더 많이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실업계고교생($M=18.53$)이 인문계고교생($M=17.51$)보다 태도적 독립에서 더 높은 분리를 나타내고 있다.

성별 아버지 분리에서는 남학생($M=51.21$)이 여학생($M=50.30$)보다 기능적 독립을 더 많이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방은영(1986)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지니는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여아를 더 의존적으로 양육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인 분리-개체화가 고등학교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분리-개체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확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된다.

본 연구는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모와의 분리-개체화수준에 대하여 구명함으로써 고등학생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한 생활지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부모와의 분리-개체화수준은 계열별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 2) 부모와의 분리-개체화수준은 남녀별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 3) 부모와의 분리-개체화수준은 출생순위에 따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 1) 실업계고교생과 인문계고교생간에는 어머니와의 분리-개체화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실업계고교생과 인문계고교생간에는 아버지와의 분리-개체화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여학생과 남학생간에는 어머니와의 분리-개체화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4) 여학생과 남학생간에는 아버지와의 분리-개체화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5) 출생순위별로 어머니와의 분리-개체화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6) 출생순위별로 아버지와의 분리-개체화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은 제주시내 실업계고교생 234명, 인문계고교생 224명, 남학생 212명, 여학생 246명을 임의로 추출하였다.

사용된 도구는 Hoffman(1984)의 심리적 분리 척도를 바탕으로 배제현(1993)이 우리나라 청소년과 문화에 알맞게 번안,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0년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평균값과 표준편차, t검증, F검증 등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리-개체화에 대한 고교생간의 계열별 아버지 분리에서는 분리-개체화의 하위요인 중 태도적 독립에서 실업계고등학생(M=18.53)이 인문계고등학생(M=17.51)보다 높게 나타났다($P<.01$).

2) 분리-개체화에 대한 고교생간의 성별 어머니 분리에서는 분리-개체화의 하위 요인 중 기능적 독립에서 남학생(M=48.18)이 여학생(M=44.12)보다 분리-개체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P<.001$).

또한, 태도적 독립에서도 남학생(M=17.14)이 여학생(M=16.11)보다 분리-개체화수준이 높게 나타났다($P<.01$). 이러한 남녀의 차이는 분리-개체화 요인전체에서도 남학생(M=130.65)이 여학생(126.2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3)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고교생간의 성별 아버지 분리에서는 분리-개체화의 하위 요인 중 기능적 독립에서 남학생(M=51.21)이 여학생(M=49.52)보다 높게 나타났다($P<.05$).

4) 분리-개체화 수준에 대한 고교생간의 출생순위별 어머니 분리에서는 분리-개체화의 하위 요인 중 갈등적 독립에서 넷째이하(M=31.66), 둘째(M=29.48), 셋째(M=29.09), 첫째(M=28.56)순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2. 결 론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1) 분리-개체화에 대한 고교생간의 계열별 아버지 분리에서는 태도적 독립에서 실업계고등학생이 인문계고등학생보다 높다.
- 2) 어머니 분리와 아버지 분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능적 독립이 높다.
- 3) 어머니 분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태도적 독립이 높다.
- 4) 출생순위별 어머니 분리에서 첫째자녀가 넷째이하, 둘째, 셋째자녀보다 갈등적 독립이 가장 낮다.

결론적으로 기능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한국어머니들은 아직도 남아선호사상에 젖어 있으며, 부모는 남아와 여아를 양육함에 있어서 다르게 양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출생순위별 부모와의 분리에서 아버지가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가정 내에서 어머니 역할의 상대적 크기에 의한 아버지 부재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 바,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의 조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김은영(1992).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희(1996). “사회 환경과 청소년의 좌절 : 원인 반응 및 대책”, 제12회 특수상담사례연구발표회,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충기(1998). 「생활지도·상담·진로지도」, 교육과학사.
- 노은미(1997). 대학생의 심리적 분리가 방어기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 민경화(1995). 역기능적인 가족구조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아청(1997). 「아이덴티티의 탐색 II」, 중앙적성출판사.
- 박아청(2000). 「사춘기의 이해」, 교육과학사.
- 박찬주(1993).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방은영(1986).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지니는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배제현(1993).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와 자아정체감, 학교 및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학지사
- 윤승경(1989). 청년기 자녀의 애착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명애(1992).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와 심리적 분리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 정옥분(1999).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 정종권(1998). 청소년 후기의 가정과 학교생활 적응이 개체화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 정철영(1999).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 상업교육연찬회연수자료, 제주도 교육청.
- 조복희외(1999). 「인간발달」, 교문사.
- 최순영·김수정 편(1997). 「인간의 사회적·성격적 발달」, 학지사
- 한상철(1999). 「청소년학 개론」, 중앙적성출판사.
- 홍강의(1984). “제 2개별화시기로서의 청소년기”, 정신의학보. 제8권, 제 12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395-400.
- Blos, P. (1962). *On adolescence: A psychoanalytic perspective*. Glencoe, IL: The Free Press.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Hoffman, J.A.(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ce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1, 170-178.
- Josselson, R.(1980). Ego development in adolescence. In J. Ade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Wiley.
- Mahler, M.S., Pine, F., & Bergman,A.(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human infant*. New York: Basic Books.
- Marcia, J.(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Marcia, J.(1991). Identity and self-development. In R. M. Lerner, A. C. Perterson, & J. BrooksGunn(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 New York : Garland.
-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Mischel, W.(1970). Sex-typing and socialization. In P. H. Musser(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vol. 2.). New
york : Wiley.



<ABSTRACT>

A Study on the High School Students' Separation Individuation

Gim, Chang Ryun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Myoung Kyou

Today most high school students dedicate most of their time to the learning for the university entrance, and because of this, their Separation Individuation(SI) from their parents is likely to happen too late and their late SI is causing many problems.

However, most studies on the SI were done on university students' and studies on high school students' SI have not been so man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ain some materials for understanding and teaching high school students reasonably, through studies on high school students' SI, done by school(vocational and academic school), sex, birth respectively.

Subjects of this study wer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234, academic school students 224, boy students 212, and girl students 246, in Jeju city.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1

The collection period of materials was from November 18th, 2000, to November 30th, 2000, and the method of study was well-structured questionnaire.

As a research tool, Psychological Separation Indicator was used.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Indicator was translated and redesigned for Korean students and their culture by Bae(1993), based on Hoffman(1984)'s Psychological Separation Indicator.

SPSS was used for analyzing the collected materials, and Mean, SD, t-test and F-test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the followings;

- 1) In father separation by school(vocational and academic), the degree of attitudinal independence was higher i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a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 2) In mother separation and father separation, the degree of boy students' functional independence was higher than that of girl students'.
- 3) In mother separation, the degree of boy students' attitudinal independence was higher than that of girl students'.
- 4) In mother separation by birth, the degree of first child's conflictual independence was the lowest among four children.

As a result, the difference of functional independence and attitudinal independence which exists in boy and girl students says that Korean mothers still prefer boy child to girl child, and parents have different attitudes for growing their children-boy child and girl child.

Especially, in the analysis of father separation by birth, father didn't

have much effect at home. This can be understood because of father's absence at home, caused by mothers' more effect at home. Therefore, the role of parents at home should be harmonious and balanced.



부 록

<부록 1>.....43



<부록 1>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지는 청소년기의 고등학생들의 분리-개체화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분리-개체화란 인간이 출생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심리적 독립이 어느 만큼 이루어졌는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설문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는 절대로 비밀 보장할 것과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지를 차례로 읽고 각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김 창 련

※ 다음은 학생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설명한 문항입니다.

| 설 문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 렇다 |
|---|-----------------|-----------------|-----------|-----------|---------------|
| 1. 나는 어머니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면 하고 간절하게 바란다. | 1 | 2 | 3 | 4 | 5 |
| 2. 나는 항상 어머니와 싸움(논쟁)하기를 좋아한다. | 1 | 2 | 3 | 4 | 5 |
| 3. 나는 내 문제로 인해 어머니를 비난한다. | 1 | 2 | 3 | 4 | 5 |
| 4. 나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항상 어머니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 1 | 3 | 3 | 4 | 5 |
| 5. 어머니는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 1 | 2 | 3 | 4 | 5 |
| 6. 나는 어머니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1 | 2 | 3 | 4 | 5 |
| 7. 나는 어머니를 보다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어머니가 더욱 더 가까이 에 사셨으면 한다. | 1 | 2 | 3 | 4 | 5 |
| 8. 여성의 역할에 관한 나의 견해는 어머니의 견해와 비슷하다. | 1 | 2 | 3 | 4 | 5 |
| 9. 나는 어머니에게 자주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 1 | 2 | 3 | 4 | 5 |
| 10. 나는 때때로 어머니께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 1 | 2 | 3 | 4 | 5 |
| 11. 나는 어머니와 떨어져 있으면 외로움을 느낀다. | 1 | 2 | 3 | 4 | 5 |
| 12. 어머니가 나를 너무 많이 과잉보호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바란다. | 1 | 2 | 3 | 4 | 5 |
| 13. 남자의 역할에 관한 나의 견해는 어머니의 견해와 비슷하다. | 1 | 2 | 3 | 4 | 5 |
| 14. 나는 중요한 물품을 어머니의 동의 없이는 구입할 수 없다. | 1 | 2 | 3 | 4 | 5 |

| 설 문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 15. 어머니가 나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 | 1 | 2 | 3 | 4 | 5 |
| 16. 어머니가 나를 우습게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 1 | 2 | 3 | 4 | 5 |
| 17. 나는 때때로 단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집으로 전화통 걸기도 한다. | 1 | 2 | 3 | 4 | 5 |
| 18. 나의 종교적 신념은 어머니의 신념과 비슷하다. | 1 | 2 | 3 | 4 | 5 |
| 19. 어머니는 내게 너무 많이 기대하신다. | 1 | 2 | 3 | 4 | 5 |
| 20. 나는 내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 1 | 2 | 3 | 4 | 5 |
| 21. 어머니는 내가 용돈의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 | 1 | 2 | 3 | 4 | 5 |
| 22. 나는 방학때 집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 1 | 2 | 3 | 4 | 5 |
| 23. 때때로 어머니가 나를 좀더 어른 처럼 대해주셨으면 한다. | 1 | 2 | 3 | 4 | 5 |
| 24. 나는 방학때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나면 어머니와 헤어지기가 힘이 든다. | 1 | 2 | 3 | 4 | 5 |
| 25. 나는 주말에 도시를 벗어나는 계획을 세울 경우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한다. | 1 | 2 | 3 | 4 | 5 |
| 26. 나는 자주 어머니께 화가 난다. | 1 | 2 | 3 | 4 | 5 |
| 27. 나는 우리 어머니가 좋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머니가 한 것이라면 듣지 않으려 한다. | 1 | 2 | 3 | 4 | 5 |

| 설 문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 28. 나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물어 어머니에게 여쭙어 본다. | 1 | 2 | 3 | 4 | 5 |
| 29. 어머니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다. | 1 | 2 | 3 | 4 | 5 |
| 30. 나는 사소한 일로 어머니와 논쟁을 한다. | 1 | 2 | 3 | 4 | 5 |
| 31. 천지창조에 대한 나의 신념은 어머니의 신념과 비슷하다. | 1 | 2 | 3 | 4 | 5 |
| 32. 나는 내 또래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도 어머니와 더 가까운 것 같다. | 1 | 2 | 3 | 4 | 5 |
| 33. 사후 세계에 대한 나의 신념은 어머니의 신념과 비슷하다. | 1 | 2 | 3 | 4 | 5 |
| 34. 나는 방학중의 계획을 세울 때 어머니의 조언을 요청한다. | 1 | 2 | 3 | 4 | 5 |
| 35. 나는 때때로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긴다. | 1 | 2 | 3 | 4 | 5 |
| 36. 나는 어머니의 반응에 대해 너무 많이 신경을 쓴다. | 1 | 2 | 3 | 4 | 5 |
| 37. 나는 어떠한 일이 잘못될 때마다 어머니를 찾는다. | 1 | 2 | 3 | 4 | 5 |
| 38. 나는 때때로 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을 해야한다고 얘기할 때 화가 난다. | 1 | 2 | 3 | 4 | 5 |

※ 다음은 학생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설 문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 1. 나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면 하고 간절하게 바란다. | 1 | 2 | 3 | 4 | 5 |
| 2. 나는 항상 아버지와 싸움(논쟁)하기를 좋아한다. | 1 | 2 | 3 | 4 | 5 |
| 3. 나는 내 문제로 인해 아버지들 비난한다. | 1 | 2 | 3 | 4 | 5 |
| 4. 나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항상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 1 | 3 | 3 | 4 | 5 |
| 5. 아버지는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 1 | 2 | 3 | 4 | 5 |
| 6. 나는 아버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1 | 2 | 3 | 4 | 5 |
| 7. 나는 아버지들 보다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더욱 더 가까이 에 사셨으면 한다. | 1 | 2 | 3 | 4 | 5 |
| 8. 여성의 역할에 관한 나의 견해는 아버지의 견해와 비슷하다. | 1 | 2 | 3 | 4 | 5 |
| 9. 나는 아버지에게 자주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한다. | 1 | 2 | 3 | 4 | 5 |
| 10. 나는 때때로 아버지께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 1 | 2 | 3 | 4 | 5 |
| 11. 나는 아버지와 떨어져 있으면 외로움을 느낀다. | 1 | 2 | 3 | 4 | 5 |
| 12. 아버지가 나를 너무 많이 과잉보호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 | 1 | 2 | 3 | 4 | 5 |
| 13. 남자의 역할에 관한 나의 견해는 아버지의 견해와 비슷하다. | 1 | 2 | 3 | 4 | 5 |
| 14. 나는 중요한 물품을 아버지의 동의 없이 구입할 수 없다. | 1 | 2 | 3 | 4 | 5 |

| 설 문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 15. 아버지가 나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 | 1 | 2 | 3 | 4 | 5 |
| 16. 아버지가 나를 우습게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 1 | 2 | 3 | 4 | 5 |
| 17. 나는 때때로 단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집으로 전화통 걸기도 한다. | 1 | 2 | 3 | 4 | 5 |
| 18. 나의 종교적 신념은 아버지의 신념과 비슷하다. | 1 | 2 | 3 | 4 | 5 |
| 19. 아버지는 내게 너무 많이 기대하신다. | 1 | 2 | 3 | 4 | 5 |
| 20. 나는 내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 1 | 2 | 3 | 4 | 5 |
| 21. 아버지는 내가 용돈의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 | 1 | 2 | 3 | 4 | 5 |
| 22. 나는 방학때 집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 1 | 2 | 3 | 4 | 5 |
| 23. 때때로 아버지가 나를 좀더 어른 처럼 대해주셨으면 한다. | 1 | 2 | 3 | 4 | 5 |
| 24. 나는 방학때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나면 아버지와 헤어지기가 힘이 든다. | 1 | 2 | 3 | 4 | 5 |
| 25. 나는 주말에 도시를 벗어나는 계획을 세울 경우 일반적으로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한다. | 1 | 2 | 3 | 4 | 5 |
| 26. 나는 자주 아버지께 화가 난다. | 1 | 2 | 3 | 4 | 5 |

| 설 문 내 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 27. 나는 우리 아버지가 좋은 생각이 있 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가 한 것 이라면 듣지 않으려 한다. | 1 | 2 | 3 | 4 | 5 |
| 28. 나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 아버지 에게 여쭙어 본다. | 1 | 2 | 3 | 4 | 5 |
| 29. 아버지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 다. | 1 | 2 | 3 | 4 | 5 |
| 30. 나는 사소한 일로 아버지와 논쟁 을 한다. | 1 | 2 | 3 | 4 | 5 |
| 31. 천지창조에 대한 나의 신념은 아 버지의 신념과 비슷하다. | 1 | 2 | 3 | 4 | 5 |
| 32. 나는 내 또래의 대부분의 사람들 보다도 아버지와 더 가까운 것 같다. | 1 | 2 | 3 | 4 | 5 |
| 33. 사후 세계에 대한 나의 신념은 아 버지의 신념과 비슷하다. | 1 | 2 | 3 | 4 | 5 |
| 34. 나는 방학중의 계획을 세울 때 아버지의 조언을 요청한다. | 1 | 2 | 3 | 4 | 5 |
| 35. 나는 때때로 아버지들 부끄럽게 여긴다. | 1 | 2 | 3 | 4 | 5 |
| 36. 나는 아버지의 반응에 대해 너무 많 이 신경을 쓴다. | 1 | 2 | 3 | 4 | 5 |
| 37. 나는 어떠한 일이 잘못될 때마다 아 버지들 찾는다. | 1 | 2 | 3 | 4 | 5 |
| 38. 나는 때때로 아버지가 나에게 무 엇을 해야한다고 얘기할 때 화가 난다. | 1 | 2 | 3 | 4 | 5 |

◆ 수고 하셨습니다. 빠뜨린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